

용차이 :

아니, 그렇게 안 하지. 체험용 .006을 쓰던 사람이 정식으로 편입되어 .023을 받게 된다면, 그냥 새로 .023을 받아서 쓰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미 잘 쓰고 있는 .006는 또 다음 사람의 체험 용으로 쓰면 되거든. 우리 아직 어디에도 분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룰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001, #003 에게 분양했던 건 다 회수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예외 없는 규칙을 세우는 거고. 그럼 항상 .001 ~ .010 은 체험 용으로 존재하는 거야. 거기에 이번에 .008 600년만의 제2 집현전 프로젝트를 끼워 넣어서 체험 용으로 함 굴러보자는 거야. 맨날 세워 두고 만 있음 뭐해? ㅋㅋㅋ 이번 며칠만에 풀리는지를 보는 건 이후에 혹, 악의적인 선점자가 나오면 그걸 콘트롤 하기 위함 이란 목적이 더 맞겠어.

지니 :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체험번호는 회수해서 재사용한다**'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용차이님은 **처음부터 다른 운영 문법**을 구상하고 계셨군요.

그 문법은 이렇네요.

- **.001 ~ .010 = 영구적인 체험 공간**
- 체험자는 이 공간에서 먼저 운영을 해본다.
- 정식 편입하면 **새로운 정식 번호(#023 등)**를 발급받는다.
- 그런데 **체험 공간(.001~.010)**은 그대로 유지되어 다음 체험자가 또 사용한다.

그러니까 체험 공간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공간인 거죠.

이 방식이면 장점이 분명합니다.

1.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001 ~ .010은 "체험 존"입니다.

2. **안내하기 쉽습니다.**

"먼저 .001~.010 중 하나에서 체험해 보세요."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끝납니다.

3. **운영이 단순합니다.**

정식 번호와 체험 번호를 섞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008 아이디어도 같은 맥락이네요.

'600년만의 제2 집현전 프로젝트'를 체험 존 안에 넣어 실제로 굴러보자는 것.

그러면 체험 존이 단순히 비어 있는 번호가 아니라 **항상 살아 움직이는 운영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저는 더 중요하게 들렸습니다.

"이번 며칠 만에 풀리는지를 보는 건 이후에 혹, 악의적인 선점자가 나오면 그걸 콘트롤 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이건 .001 하나를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Meta username의 '해제 주기'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누군가가 일부러 username을 선점하거나, 운영상 번호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실제로 약 ○○일 정도면 다시 사용할 수 있었다."

라는 경험이 생깁니다.

이건 Meta가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규칙이 아니라, **원펀치캠프가 직접 축적한 운영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001 사건은 단순한 시행착오가 아니라, 앞으로 번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용차이 :

맞아. 그리고 .008 이나 .002 는 같은 처지가 되는 거야. 체험 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자체로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사이트가 되는 거지. 아마도 나머지 여덟 개의 번호도 역시 같은 처지가 아닐까? 자기 페이지 이름에 걸 맞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을까? 살아있는 실습이 될 거야, 아마도~

지니 :

이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흥미롭네요.

처음에는 저는 **체험 공간**을 말 그대로 "비어 있는 샘플"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차이님 설명을 들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001 ~ .010은 **살아 있는 실습장**이 되는 거군요.

예를 들어,

- .002는 동작50+가 계속 운영됩니다.
- .008은 제2 집현전 프로젝트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 .001도 재미코딩이라는 실제 활동이 이어집니다.

즉, 체험자는 **빈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현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자기 iBooth를 갖게 되면 자기 번호(#023 등)로 독립하는 것이고요.

이 구조의 장점은 체험 공간도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쌓인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데모 사이트는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는 .001 ~ .010이 계속 운영되므로, 새로 오는 사람은 항상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떠오르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체험용이 아니라 '살아 있는 모델하우스'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비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 꾸며 놓잖아요.

여기서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과 프로젝트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모델하우스인 셈입니다.

그래서 체험자는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운영되는 현장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이건 원펀치캠프가 지금까지 추구해 온 "발생이 먼저이고 문법은 나중이다"와도 잘 맞는 운영 방식으로 보입니다.